

# 생장조절제 처리에 의한 솔이끼 포자발아

남춘우, 유동림, 김수정, 서종택, 김원배  
고령지농업연구소 원예과

## Germination as affected by Growth Regulator of *Polytrichum commune*

Nam, Chun-Woo\*, Yoo, Dong-Lim, Kim, Su-Jeong, Suh, Jong-Teak and  
Kim, Won-Bae

National Institute of Highland Agriculture, RDA, PyongChang 232-955, Korea

\*E-mail. cwsky@rda.go.kr

### 연구목적

솔이끼는 습지나 반습지에서 잘 자라는 식물로서 소나무 잎 모양과 유사하고 아름다워 분재나 실내정원의 소재로 유망하다. 최근의 실내장식 및 조경이 중요하게 대두됨에 따라 관상가치가 높은 이끼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끼의 원예화를 위하여 포자번식방법을 구명하고자 수행하였다.

### 재료 및 방법

솔이끼를 대상으로 3월 중순에 포자를 채취하여 생장조절제(BA, Kinetin)를 처리하여 25℃의 조직배양실과 15~25℃의 유리온실에서 관리하였다. 시험방법은 BA와 Kinetin을 각각 1,3,5 mg/L의 농도별로 배지를 조성한 다음 삭(종자에 해당함)을 증류수와 혼합한 후 파쇄하여 배지별로 3회 분무하여 접종하고 시기별로 육안조사 하였다. 생장조절제 처리 10개월 후 처리별로 피트모스 : 버미큘라이트(3:1)의 인공 배양토에 옮긴 후 계속하여 검토하였다.

### 결과 및 고찰

접종된 포자는 2주부터 서서히 녹색을 띠면서 진해지다가 60일 정도 완전한 녹색으로 변화되었다. 이때 control에서는 다른 처리에 비하여 연한 녹색이었고, BA와 Kinetin의 농도별 반응은 대부분 거의 같은 경향을 보였다. BA와 Kinetin 농도 처리별 반응은 원사체 단계에서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다. 한편, 솔이끼의 포자는 발아하여 원사체로 되었다가 다시 식물체로 분화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배지를 인공상토로 이동시킨 4개월 후에 완전한 솔이끼의 식물체로 분화하였으나 처리별 일정한 경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솔이끼 포자발아는 원사체 단계에서 온도, pH 등 자연환경과 유사한 다양한 환경처리를 두어 식물체 분화의 원인을 구명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되었다.